

남자양궁 단체전 올림픽 3연패 겨냥 허미미 유도 금 도전...신유빈 64강전



한국 남자 양궁이 단체전 올림픽 3회 연속 우승을 겨냥한다.

김우진(정주시청), 이우석(코오롱), 김제덕(예천군청)으로 구성된 남자 양궁대표팀은 29일 오후 9시 38분(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레장발리드 특별 사로에서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전 8강전에 나선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2020 도쿄 대회에 이어 파리에서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는 남자 양궁 대표팀은 랭킹 라운드를 통해 위망업을 끝냈다.

지난 25일 진행된 랭킹라운드에서 김우진은 686점을 쏘면서 전체 1위에 올랐다. 김제덕은 682점으로 2위, 이우석은 681점을 기록하면서 5위에 랭크됐다. 세 선수의 점수를 합하면 2049점으로 단체전 경쟁팀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였다. 프랑스가 2025점으로 2위, 인도가 2013으로 그 뒤를 이었다.

8강전에 이어 바로 준결승과 결승전이 치러진다. 양궁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놓고 벌이는 마지막 승부는 30일 오전 12시 11분에 펼쳐진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프랑스 하늘에 태극기를 휘날리려 합니다'라는 출사표를 던진 여자 유도도 허미미(경북체육회)의 우승 도전은 29일 오후 6시 36분 시작된다.

허미미는 상드마르스 아레나에서 열리는 여



허미미

신유빈

자 57kg급 경기 16강전을 시작으로 금빛 메달에 도전한다.

허미미는 지난 5월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 세계랭킹 1위 크리스타 테구치(캐나다)를 연장 혈투 끝에 반칙승으로 꺾으면서 대회 정상에 올랐다. 우리나라 여자 선수로는 29년 만에 전해 온 세계선수권 우승 소식이었다.

세계선수권 우승으로 파리올림픽 기대감을 키운 허미미는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으로도 유명하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재일교포 출신 허미미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태극마크를 달고 파리 무대에 오른다.

도쿄올림픽 '베약이'에서 파리올림픽 '탁구 간판'이 된 신유빈(대한항공)은 29일 오후 6시 36분의 엘리사 테페를 상대로 여자 단식 64강전에 나선다. 탁구 여자 단식 금메달 결정전은 8월 3일 오후 9시 30분 치러진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한국 남자 양궁 대표팀.

질병관리청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28일 질병청에 따르면 일본뇌염 매개 모기 감시 체계 운영 결과, 이달 24일 경남과 전남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 모기의 63.2%, 58.4%로 각각 확인돼 경보 발령 요건을 충족했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

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한다.

제3급 법정감염병인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을 겪는다. 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이어질 경우 고열, 발작, 목 경직, 작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 가운데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연합뉴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정부 동의

한국 노동자 기리는 전시물 설치

정부 "일 전체역사 반영 요구 수용"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정부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고 현장에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한 전시물을 이미 설치한 데 따라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27일 일본이 신청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결정했다.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모든 관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과 이와 관련된 일본의 약속을 명시하며, 특히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을 포함한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들을 진심으로 추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도광산에 대한 한일 간 의견 차이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본은 이미 모든 노동자들과 그들의 고된 작업 조건 및 고난을 설명하는 새로운 전시 자료와 해설 및 전시 시설을 현장에 설치했다"고 강조했다.

가노 대사의 발언은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 각주로 포함돼 결정문의 일부로 간주된다.

일본이 새로 설치했다는 전시물은 사도광산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로 2km 정도 떨어진 기타자와 구역에 있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마련됐다.

박물관 2층 한 구역에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의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의 가혹한 노동조건 등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는 공간이 자리했다.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의 삶에 대한 설명 등이 영어와 일본어로 적힌 패널도 설치됐다. 여기에는 국민정용령 도입으로 광산에 1천명 이상의 한국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 부유선광장의 28일 모습. 근대유산인 부유선광장은 세계유산 구역에서 제외됐다. 부유선광장 주변에는 사도 광산 조선인 노동 관련 사실을 전시한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이 있다. /연합뉴스

노동자가 있었고 모집·관 알선에 조선총독부가 관여했다는 점, 바위 뚫기 등 위험한 작업에 한국인 노동자가 일본인보다 더 많이 종사했다는 점, 한국인 노동자의 월평균 근로일이 28일에 달했다는 점 등이 적시됐다.

전시 시설은 오는 28일부터 일본인에 공개된다. 향토박물관 안내 브로슈어에 별지로 이 공간이 소개되며 한국인 노동자 가족사 터에도 안내판이 설치된다.

일본은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중앙·지방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년 사도 섬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 첫 행사는 이르면 9월에 열린다. 이같은 일본의 조치는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달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사

도광산에 대해 등재 '보류'를 권고하며 '전체역사 반영' 등을 주문한 뒤 협상을 진행해 왔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2015년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 등 근대산업시설 등재 당시에도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번엔 실제 행동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등재와 관련된 일본의 조치들은 정부가 2015년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등재와 관련한 센터 설치 지연 및 전시 장소와 내용의 미흡성 등 교훈을 토대로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수의 한국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 노동'에 처했다는 점이 전시물이나 추도식 과정에서 얼마나 부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국도 1호선·남악 연결 지방도 825호선 준공

원동~청룡 간 3.6km 구간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원동-청룡간 지방도(지방도 825호선) 준공'이 지난 26일 열렸다. 이 도로는 민선 7기 이후 38번째로 완공·개통하는 도로다. 이번 준공으로 전남도청~전남예고등학교 통행시간이 기존 20분(12km)에서 10분(5km)으로 단축되면서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물류비 절감 및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준공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전남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무안군 지역 주민과 공사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 기념사, 준공 세레머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국도 1호선과 남악 신도시 초입부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원동-청룡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연장 3.6km, 왕복 2차선 도로로 사업비 350억원이

투입된 도로이다. 당초 도로 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된 바 있다.

'원동-청룡 지방도' 구간을 시작으로 현재 추진 중인 '남악-임성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2025년 준공돼 지방도 825호선이 최종 완공되면 서남권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 남악-오동지역에서 무안읍과 함평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을 분산시키며 교통체증 해소와 더불어 전남도청과 무안국제공항, MRO산단 등 주요 산업 거점과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지역 간 상생을 이끄는 원동-청룡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준공을 축하하며 무안군이 전남도 행정의 중심지이자 서남권 국제교류의 관문이 되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시군 복지 정책관계자회의 하반기 복지정책 협력 방안 모색

전남도가 지난 26일 전남사회복지서비스협의회에서 '도-시군 지역복지 정책관계자 회의'를 열어 긴급돌봄과 재가의료급여, 고독사 예방 등 2024년 하반기 복지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전남도와 시·군 지역복지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반기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복지부 정책 방향과 새롭게 시작하는 지역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사업 내용을 공유했다. 전남도는 민선8기 후반부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실현을 위해 긴급돌봄, 재가 의료사업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이와함께 22개 시·군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고독사 예방 등 지역복지 사업 성과를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뭣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뭣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4. 7. 24. 주주총회의 서면결의로써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7월 29일

주식회사 캐니스테이머
전라남도 여수시 충무로 54-2(충무동)
사내이사 김현석

법인 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3차)

당 법인은 2024년 5월 21일 정기 회원(사원)총회에서 2024년 5월 21일자로 해산을 결의하고, 2024년 6월 13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9일

사단법인 광주자동차산업협의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55
(오선동, 광주그린가전공원)
청산인 권주형 (062-960-9532)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